



금리·유가 부담에 혼조 마감

뚜렷한 모멘텀 부재한 가운데, 매크로 경계감 지속
반도체 소부장 강세, 2차전지·건설주 약세

주요 지표 일간 변동

KOSPI	KOSDAQ	KOSPI200
6,870.81pt (-0.27%)	849.80pt (+0.38%)	1,088.15pt (-0.10%)
달러-원 환율	韓 10년물 국채 금리	S&P500 선물
1,357.80 원 (-2.1 원)	4.5120% (-2.7bp)	7,744.75pt (-0.03%)

참고: 발간 시각 기준
자료: KRX

주요 수급 동향

	KOSPI	KOSDAQ	KOSPI200 선물
개인	+11,449 억	+1,481 억	-827 억
외국인	-29,045 억	-1,293 억	-1,605 억
기관	+1,206 억	+55 억	+2,574 억

참고: 발간 시각 기준
자료: KRX

KEY DRIVER

- 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채 금리 및 유가 상승세에 혼조 마감했습니다.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, 매크로 부담이 지속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습니다. 다만 장중 1%대 하락세를 보이던 코스피는 시총 상위 종목이 반등하면서 하락폭을 축소했습니다. 이날 KOSPI는 0.27% 내렸고, KOSDAQ은 0.38% 올랐습니다. KOSPI 거래대금은 약 18.0조원, KOSDAQ은 약 7.5조원을 기록했습니다.(KRX 기준)
- 외국인은 KOSPI를 약 2.9조원 순매도했습니다. 외국인의 매도세는 SK하이닉스에 집중됐습니다. 한편, 기관은 KOSPI를 약 1천억원 순매수했습니다.
- 업종별로 살펴보면, 실적 성장 기대감에 반도체 소부장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. 특히 한미 반도체가 장비 수주 계약을 발표하며 주가가 상승했습니다. 기판 수요 증가 전망 속 IT H/W 업종이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. 반면, 중국 배터리 업체가 폭스바겐과 유럽 내 배터리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는 소식에 국내 2차전지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. 대미투자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건설주가 하락했습니다.
- 주요 종목 중에서는 DB하이텍(+10.46%), HPSP(+9.29%), 한미반도체(+6.82%)가 올랐고, 현대건설(-5.94%), 포스코퓨처엠(-5.18%), LG에너지솔루션(-3.16%)이 내렸습니다.

Compliance Note

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.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경, 대여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.